

Sinochem, 인천정유 인수 척척...

중국 국가원 조건없이 승인 ... 화학비료 140만톤 플랜트도 건설

또 중국 국가원(State of Council)은 Sinochem International의 대주주인 Sinochem Group이 5억6000만달러에 인천정유(Inchon Refinery)를 인수하도록 승인했다.

인천정유는 석유정제능력 1400만톤의 한국 5위 정유기업이다.

중국 최대 정유기업인 Zhenhai Refining & Chemical의 생산능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인천정유를 인수함으로써 Sinochem Group은 정유 수입기업으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2004년 12월 인수 최종절차가 마무리되면 Sinochem Group은 석유정제 원료 공급 및 석유제품 유통 권한을 Sinochem International에 양도할 예정이다.

Sinochem International은 인천정유의 제품 가운데 중국에서 귀한 업스트림 자원인 Aromatic 제품 및 인천정유의 무역이점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확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inochem은 Jianfeng Chemical Industrial과 협력해 56억원을 투자하는 화학비료 140만톤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Jianfeng Chemical Industrial은 Chongqing Chemical & Pharmaceutical Holding Group에 합병됐다.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며 세부사항 결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합작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화학비료 생산량은 300만톤에 달하고 Chongqing 지역은 중국의 주요 화학비료 생산기지이자 서부지역 최대 화학비료 생산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Sinochem은 Chongqing 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Chongqing 지역을 화학비료 생산베이스로 선정했다.

<화학저널 2005/01/17>